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어휘 분석 및 개선 방안 한국어 '상징부사+용언'을 중심으로

중예1)

인하대학교 박사수료

---

## <요약>

---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세밀한 느낌과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때 보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한국어 '상징부사+용언'형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교재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수 외국인 학습자들이 어휘를 습득할 때 개별 단어를 암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어휘간의 결합을 중시하지 않으므로 한국어 어휘를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상징부사는 고립되어 사용하지 않으며 특정 어휘와 자주 공기하기 때문에 개별 어휘가 아닌 '상징부사+용언' 형태로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고는 상징부사 뒤에 오는 특정 어휘 또는 공통적인 의미자질을 가진 어휘 군과 자주 공기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에 상징부사 뒤에 서술어가 함께 사용되는 양상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7종 교재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상징부사+용언'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상징부사, 상징부사+용언, 교재분석, 중국인 학습자, 교재 개선 방안

---

## I. 서론

사람이 언어로 의사소통할 때 단순히 사실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상대방의 정서나 감정을 더욱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이때 일반적인 어휘보다 사물의 소리와 형태, 움직임 등 더 생생하게 효과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상징부사이다. 상징부사라는 것은 의성어, 의태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의성·의태어는 소리와 형태를 나타내는 낱말이다. 의성어와 의태어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문자나 회화에서 빈번히 사용되며 실용성이 있는 언어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 (1) 토끼가 강충강충 뛰다.
- (2) 토끼가 뛰다.

위 예문에서 보듯이 예문(1)과 예문(2)은 전달하고 싶은 중심 내용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토끼가 강충강충 뛰는 것은 토끼가 뛰는 것보다 그 동작의 움직임을 더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고 더 풍부한 의미가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측면에서 어휘 교육의 중요성 및 비중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수 외국인 학습자들이 어휘를 습득할 때 개별 단어를 암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어휘간의 결합을 중시하지 않으므로 한국어 어휘를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지 못한다. 특히 상징부사의 경우는 앞뒤에 제한된 어휘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전혀 없는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상징부사를 활용하기가 어려워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땀을 뺀뺀 흘리다'의 경우에는 상징부사 앞에 위치하는 목적어 '땀'과 상징부사 뒤에 위치하는 서술어 '흘리다'를 한정시킬 수 있다. 세 어휘가 각각의 자리에서 서로 공기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다른 체언, 상징부사, 용언들로 바꿀 수가 없다.

상징부사는 한국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쓰인다. 언어의 생동감, 현장감, 미감 등을 나타내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TV 방송과 문학작품에도 자주 보이고 있으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전체 어휘에서는 한자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징부사는 특별하게도 유일한 고유어 영역을 지키고 있다. 이런 외래어로 바꿀 수 없는 부류로서 연구가치가 아주 높다. 한국어의 상징부사는 다른 나라의 상징부사보다 그 수가 많은 편이다. 한국어에는 왜 이렇게 많은 상징부사가 있을까? 한국어는 대상자에 따라 사용하는 표현이 항상 바뀌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성별이나 연령 두 측면에서 보면 의성부사와 의태부사의 사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아이가 소리없이 입을 예쁘게 벌려 가볍게 한번 웃는 모양을 표현하는 ‘방긋방긋’은 흔히 어른을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 대신 어른 대상으로는 ‘생글생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남자가 웃는 모양을 표현하는 ‘낄낄’은 아이나 여성들에게 항상 쓰이지 않는다. 이것은 상징부사가 한국어에서 얼마나 발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만큼 상징부사에 관한 연구가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세밀한 느낌과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때 보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한국어 ‘상징부사+용언’형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교재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징부사는 고립되어 사용하지 않으며 특정 어휘와 자주 공기하기 때문에 개별 어휘가 아닌 ‘상징부사+용언’ 형태로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어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유창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있다. 한국어 모어화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상징부사를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 없어도 상징부사를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인 학습자들 경우 상황에 맞게 상징부사를 이해하고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징부사와 결합하는 용언은 특정 어휘이나 공통적인 의미자질을 가진 어휘군과 자주 공기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상징부사+용언’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 ‘상징부사+용언’형에 관한 연구로는 신지영(2008), 김윤경(2009), 문정현(2011), 함윤희(2011), 유정(2015), 한주연(2015), 정은주(2017) 등이 있다. 신지영(2008)에서는 다섯 군데의 기존 연구와 한국어 교재, 그리고 방송 등과 같은 구어 전사 자료를 종합하여 어휘의 빈도수가 높은 “부사류+용언”형 목록을 추출하고 각각의 등급을 설정하였다. 또한 ‘부사류+용언’형 교육 시 초, 중, 고급에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구성하였으나 ‘부사류+용언’형 목록 전체에 대한 어휘 정보를 설명하지 못하였고 고급 단계의 학습용 어휘에 대한 기준이 없어 5, 6급의 ‘부사류+용언’형 목록을 세부적으로 등급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김윤경(2009)은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체언+용언’형에 집중되어 있던 연어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징부사+용언’형 중에서도 한국어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며 한국인 화자들 특유의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 분석하여 현행 한국어 교육에서의 ‘상징부사+용언’형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전, 논문 등의 문어 자료와 드라마와 영화 대본, TV 토크쇼 등 구어 자료를 통하여 연어 목록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제시된 ‘상징부사+용언’형은 사용 빈도만으로 목록 선정을 하므로 한국어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다소 어려운 표현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여러 실제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성이 부족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상징부사+용언’형의 목록을 많이 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문정현(2011)은 어휘는 특정어휘들과 자주 공기하기 때문에 어휘가 아닌 연

어 형태로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상징부사와 용언의 긴밀성을 파악하기 위해 말뭉치를 검토하였다. 상징부사의 자료를 추출하여 '상징부사+용언'형의 결과 목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록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별 특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목록을 제시하고 유형별 특징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함윤희(2011)에서는 사용 빈도와 중복도를 바탕으로 상징부사 목록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사전, TOPIK, 교재에서 상징부사가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에는 상징부사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하여 상징부사 중심 연어 목록을 뽑았고 그 유형과 특징을 살펴, 교육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상징부사 중심 연어 목록과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보이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주연(2015)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보다 원활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연어 관계를 이용한 상징부사 교육 방안을 구안하였다.

유정(2015)은 먼저 상징부사 어휘 목록을 선정하고 영화와 드라마 말뭉치에서 상징부사의 용례와 빈도를 추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형태 반복에 따른 상징부사는 어감의 차이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서술어 변화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의 아쉬운 점은 상징부사의 일부만 가지고 연구하였기 때문에 전체 상징부사로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등급화를 하지 못한 것도 한계점이다. 정은주(2017)는 연어의 개념을 알아보고 '상징부사+용언' 결합 형태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재와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4단계)>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 결합형을 살펴보았고 연어 목록을 확정하였으며 결합형 교육 방안을 구안하였다. 그러나 대상은 고급 학습자만 한정하였다는 점이 아쉬웠다.

위의 '상징부사+용언'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상징부사+용언' 결합형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 방안에 대하여 부족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목표 어휘를 교육할 때 고급 학습자만 한정되었거나 어휘 목록 선정 후 교육 내용이나 교수 활동만 제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상징부사+용언’형 교육을 한다. 그러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상징부사+용언’형의 교육은 드물게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징부사 뒤에 서술어가 함께 사용되는 양상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에서 주요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이상 살펴보았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상징부사+ 용언’ 결합형 어휘를 중심으로 하여 중국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개선하도록 한다. 교재에서 주로 한·중 대조적인 제시방법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활용할 수 있는 교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지금까지 상징부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살펴보았고 앞에서 보았듯이 상징부사를 가리키는 용어는 학자마다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어에는 ‘상징부사’ 외에 ‘의성어·의태어’, ‘상징어’, ‘음성상징어’, ‘소리흉내말’, ‘모양흉내말’ 등이 두로 사용되어 왔다. 중국어의 상징부사는 한국어보다 풍부하지 않지만 가리키는 용어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들 중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는 ‘擬聲詞(의성사), 象聲詞(상성사), 擬態詞(의태사), 摹聲詞(모성사), 狀聲詞(상형사), 象聲詞(상형사), 摹象詞(모상사)’ 등이 있다. 또한 연구자에 따라 상징부사의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에게 혼란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위하여 한·중 사전류와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의 개념을 바탕으로 서로 대비하여 정의를 내리고자 하겠다.

## 1. 한·중 상징부사의 개념

우선 중국어와 한국어 사전에 실려 있는 상징부사의 개념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표 II-1> 한·중 상징부사의 사전적 의미 비교

용어	한국어 상징부사	중국어 상징부사
	소리를 모방한 것이 의성어이고 움직이는 모양을 모방한 것이 의태어이다. 두 가지를 합하여 상징부사라 일컫는다고 정의하였다. 『표준국어문법론』(2011)	象聲詞: 摹擬聲音的詞。如: 轟、嗖、丁東、撲哧。(상성사: 상성사는 소리를 모방하는 단어다. 예를 들어: 轟、嗖、丁東、撲哧 따위가 다.) 『漢語大詞典(第十卷)』(1992)
상징부사	상징부사는 『언어』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와 모양을 흉내 낸 의성 부사와 의태 부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철썩철썩’, ‘데굴데굴’ 따위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1999)	擬聲詞: 也叫“象聲詞”。摹仿自然聲音構成的詞。(의성사: 의성사는 ‘상성사’라고도 한다. 자연계 소리를 하여 구성된 단어.) 『辭海』(1999)
사(의성어)	의성어는 “개굴개굴, 딸랑딸랑, 호호” 따위와 같이 소리를 흉내 낸 말이며 의태어는 “방울방울, 꾸벅꾸벅” 따위와 같이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내어 만든 말이다. 『연세한국어사전』(1999)	의성어는 象聲詞(상성사)라고 하고 사물의 소리를 모방하는 말이다, 의태어는 象形詞(상형사)라고 하고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과 상태를 모방하는 말이라고 하였다. 『現代漢語辭典 修訂本』
· 의태어)	擬聲語는 사람이나 동물이 내는 소리나 자연계의 소리를 흉내 내서 그것과 비슷하게 만든 낱말, 야옹 야옹, 쿵쿵, 윙윙, 졸졸 따위로 소리시늉 흉내말, 擬態語는 사물의 모양이나 태도 행동 등의 양태를 묘사한 말로 꼬불꼬불, 아장아장, 허우적허우적 등으로 짓시늉말이다. 『새 우리말 큰 사전』(1986)	擬聲詞: 模擬事物的聲音的詞, 也叫象聲詞。如“嘩、轟、撲哧”。(의성사는 사물의 소리를 모방하는 단어로 풀이했다. 상성사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괘괘(嘩啦), 쿵(轟), 킷킷(撲哧)’ 등이 다.) 象形詞: 模擬人或事物的動作或狀態的詞。(의태어를 상형사(象形詞)라고 하고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과 상태를 모방하는 말이라고 정의하였다). 『現代漢語詞典』(2007)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씩씩’, ‘멍멍’, ‘땡땡’, ‘우당탕’, ‘퍼덕 퍼덕’ 따위가 있다. ≍ 사성어·소리시늉말·소리흉내말·의음어. 의태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 ‘아장아장’, ‘엇금엇금’, ‘번쩍번쩍’ 따위가 있다. ≍ 꼴시늉말·꼴흉내말·짓시늉말. 『표준국어대사전』(1999)

擬聲詞: 模擬事物聲音的詞, 如“啾”“撲哧”“嘩啦”等。也叫象聲詞 (의성사: 의성사는 사물의 소리를 모방하는 단어다, 예를 들어 ‘啾’, ‘撲哧’, ‘嘩啦’ 가 있다. 상성사라고도 한다.) 『現代漢語學習詞典』(2010)

<표 II-1>와 같이 한·중 상징부사의 사전적 의미 비교를 보면 의성어의 개념이 다소 다르지만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연구자마다 나름대로 정의한 것을 살펴보겠다. 한·중 상징부사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다. 자세히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2> 한·중 기존 연구에서의 상징부사의 개념

용어	한국어 정의	중국어 정의
	‘상징부사는 자연의 소리나 모습을 해당 언어의 분절음으로 나타내어 만들어진 낱말’이라고 정의했다. 소리를 모방한 것이라고 하는 의성 부사, 움직이는 모양을 모방한 것이라고 하는 의태부사는 두 가지를 합하여 상징부사라 일컫기도 한다. (윤희원,1993)	의성법(擬聲法)이란 자연계의 각종 소리를 모방하는 것으로 그 소리와 똑같이 모방한다고 볼 수 없으며 습관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므로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여기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王力,1995)
	상징부사라는 용어는 손남익(1995)에서의 의성부사와 의태부사의 개념 정의를 따르며, 이 둘을 묶은 것을 일컫는다.(김윤경,2009)	
상징부사	상징부사는 자연이나 동물의 소리와 사람의 음성 자체가 가지는 청각영상을 그대로 모방한 의성어와 어떤 상태나 움직임 등의 모양을 모방하는 의태어, 자연의 대상에서 심리적 연상과 직관으로 느껴지는 사람의 심리 내용을 모방하는 의정어로 나눈다. (박영수,2009)	상성사(象聲詞)란 음성으로 사물이나 자연계의 소리를 모방하거나 사물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예를 들어, ‘평(砰), 굉(轟隆)’ 따위는 주로 사물이나 자연계에서 나는 소리를 모방하는 말이다.(劉月華, 潘文娛, 2007)
	상징부사는 ‘한국어 교육에서 상징부사는 한국문화 화를 기반으로 소리나, 모양을 묘사하는 어휘’로 한국의 사회, 문화 등을 반영하고 있다.(문정현,2011)	언어의 외부형식으로 현대 중국어 형용사는 간단한 형식과 복잡한 형식을 나눠서 보았다. 간단한 형식 형용사는 성질 형용사이고 복잡한 형식 형용사는



<p>상징부사는 총괄적인 개념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와 모양을 흉내 낸 의성 부사와 의태 부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정의 되었다. (유정,2014)</p>	<p>상태형용사라고 하였다. 의미면에서 볼 때 성질 형용사는 단순히 사물 속성을 표시하고 상태형용사는 사물에 관하여 명백한 묘사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朱德熙,1956)</p>
<p>의성어·의태어를 어근의 반복으로 인한 부사라고 정의내리고, 의성부사와 의태부사라고 칭하였다. (고경태,2009)</p>	<p>의성어란 자연의 소리를 모방하는 말로 정의한다. 상징사라고도 한다. (夏征農,1999)</p>
<p>의성어와 의태어를 상징부사의 하위분류로 보고, 각각을 의성부사, 의태부사라고 하였다. (고영근,2006)</p>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통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상징부사를 가리키는 용어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된 용어는 다양하지만 한·중 상징부사의 정의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두 사물이나 자연계의 소리를 모방하거나 사물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상징부사를 정확히 사용하면 소리나 동작의 생동성, 형상성의 표현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중국어에서는 상징부사는 음성 기호만 보기 하여 의미는 가지기 못 한다.(딩리민, 2017)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어 의태어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는 중국어 의태어라는 정의가 정확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어 의태어의 개념, 기능 등과 비슷한 표현 효과로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이 따로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어에서 이런 어휘들을 상태형용사<sup>1)</sup>라고 한다.(Liu Huiwen, 2014)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상징부사를 정의한 개념을 기준으로 상징부사는 자연이나 사물의 소리를 그대로 모방하는 의성 부사와 어떤 상태나 움직임 등의 모양을 모방하는 의태 부사를 묶은 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정리하겠다.

1)《現代漢語(현대한어)》(2002)에서는 형용사는 성질과 상태를 표현하는 어휘라고 하고 성질을 표현하는 형용사는 상태형용사라고 했다.

## 2. 한·중 상징부사의 특징

지금까지 한국어 상징부사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상징부사는 다른 일반 어휘와는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 절에서는 한·중 상징부사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도록 하겠다.

먼저는 한국어 상징부사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상징부사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 많이 논의된 상징부사의 특징은 주요 음운적,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문법적 특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정현(2012)에 논의된 것을 참조하였다.

<표 II-3> 한국어 상징부사의 특징

형태적 특성	단순과 반복이 있다. 단순형태는 1음절, 2음절, 3음절 형태가 있다. 1음절은 ‘꼭, 딱’, 2음절은 ‘깜빡’, 3음절은 ‘부르르’등과 같은 형태이다. 반복형태는 동음반복과 유음반복이 있는데 동음반복은 2음절 ‘뽳뽳’, 4음절 ‘또박또박’, 6음절 ‘두리번두리번’이 있으며, 유음반복은 4음절 ‘허둥지둥’, 부분반복으로 ‘번지르르’가 있다. 그 외에 한국어 상징부사는 접미사와 결합하여 형용사, 동사, 명사, 부사로 파생되는 특징도 가진다.
음운적 특성	음운적 특성은 모음교체와 자음교체가 있으며, 모음교체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있다. 양성모음은 ‘하하’처럼 밝고 가벼움 등의 느낌을 주고, 음성모음은 ‘허허’처럼 어둡고 무거움과 같은 느낌을 준다.
통사적 특성	문장 성분과 어울릴 때 제약이 있다. 그 제약으로는 서술어 제약, 목적어 제약, 서술어 대신에 상징부사가 쓰이는 것들이다. 서술어 제약은 상징부사의 위치가 바뀌어도 그 뒤에 올 수 있는 서술어의 의미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혀를 끝끝 차다/끝끝 혀를 차다’처럼 문장 내에서 상징부사인 ‘끝끝’이 위치가 바뀌어도 서술어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징부사는 뒤에 오는 서술어를 제약한다. 서술어뿐만 아니라 목적어 제약의 제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목적어제약은 ‘땀을 뽳뽳 흘리다’에서 ‘뽳뽳’앞에 올 수 있는 ‘땀’이다. 그리고 상징부사가 서술어 대신 쓰이는 경우가 있다. ‘주식을 사지 못 해 발을 동동/외국 업체 기술표준 경쟁 후끈’등과 같은 것이다. 이것들은 상징부사가 존재함으로써 뒤의 서술어의 기능을 대신하며, 서술어가 생략된 경우이다. 이외에도 한국어의 상징부사는 ‘관형어, 독립어’의 문법적 기능도 담당할 수 있다.
공기 관계 유형	공기관계 유형은 서술어와의 공기, 주어/목적어와의 공기가 있다. 상징부사는 서술어와, 주어/목적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서술어, 주어/목적어를 한정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행기가 아주 빠르다’처럼 주어인 비행기는 ‘빠르다’와 의미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공기관계 유형이다. ‘영희는 혀를 끝끝 차다’에서도 역시 ‘끝끝’로 인해 목적어인 ‘혀를’ 제약한다.

다음으로 중국어 상징부사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중국어 상징부사의 특징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의미적 특징, 형태적 특징, 통사적 특징, 음운적 특징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표 II-4> 중국어 상징부사의 특징

의미적 특징	李鏡儿(2007)에서는 중국어 의성어에 대해 분류했는데, 사람에 관한 의성어, 동물에 관한 의성어, 자연현상에 관한 의성어, 사물에 관한 의성어로 나누었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참조해서 다시 세분화했다. 즉, 사람에 관한 의성어와 의태어, 사물에 관한 의성어와 의태어, 자연현상에 관한 의성어와 의태어, 동물에 관한 의성어와 의태어로 구분하였다.
형태적 특징	중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형태적 특징을 주로 단독형과 반복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한국어와 같다. 반복형은 다시 전체반복형과 부분반복형으로 나눈다. 중국어는 첩어 형식 앞에 동사, 형용사나 명사를 붙여 하나의 어휘로 보는 특징이 있다.
통사적 특징	중국어 의성어는 의성사라는 독립적인 어휘 부류에 속하고, 중국어 의태어는 의태형용사라고 부르면서 형용사에 속한다. 이외에도 중국어 상징부사는 ‘관형어, 부사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독립어(삽입어)’의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뒤에 조사 ‘的’을 붙여 문장 속에서 관형어와 서술어의 기능으로 쓰인다. 뒤에 조사 ‘地’를 붙여 문장 속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담당한다. 조사 ‘得-’와 결합하여 보어의 기능으로 담당한다.
음운적 특징	중국어는 운모, 성모, 성조로 구성된다. 운모는 한국어의 모음에 해당되는 것이고 성모는 한국어의 자음에 해당되는 것이며, 성조는 억양을 표시하는 것이다. 모음조화에 따른 어감의 차이는 중국어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3. ‘상징부사+용언’ 형의 개념 및 유형

#### 1). ‘상징부사+용언’형의 개념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상징부사+용언’형에 관한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상징부사+용언’형의 개념을 내리는 학자가 많지 않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함윤희(2011)에서는 ‘상징부사 중심 연어’라는 개념을 정하였다. 즉, ‘상징부사 중심 연어’란 문장에서 상징부사가 그 앞뒤에 오는 특정 어휘나 공통의 의

미자질을 갖는 어휘 군과 자주 공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한주연(2015)에서는 상징부사의 연어는 상징부사 앞·뒤에 오는 두 개, 세 개의 특정 어휘와 결합함으로써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스스로 유용한 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상이 된다고 정의하였다.

## 2). ‘상징부사+용언’형의 유형

일반적 부사는 전통적으로 그 문장에서의 위치가 생략이 가능하고 자유롭다는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상징부사+용언’형에 있어 그 상징부사가 흔히 수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상징부사와 공기하는 어휘의 개수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한 연구로 김홍범(1994), 손남익(1998), 함윤희(2011) 등을 들 수 있다. 그중에 손남익(1998)에 분류된 것을 많이 논의해 왔다. 손남익(1998)은 상징부사가 공기할 수 있는 용언의 수에 따라 4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기호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5> ‘상징부사+용언’ 형의 유형 분류

구성	특징
{ }-상징부사- { }	1)상징부사와 공기할 수 있는 체언과 용언이 각각 하나인 경우
[ ]-상징부사- { }	2) 상징부사가 공기할 수 있는 체언은 특정한 의미자질로 표시되는 여러 개의 어휘이고, 공기할 수 있는 용언은 한 개의 어휘인 경우
{ }-상징부사- [ ]	3) 상징부사와 공기할 수 있는 체언은 하나의 어휘이고, 공기할 수 있는 서술어는 일정한 의미 군에 속하는 여러 개의 용언인 경우
[ ]-상징부사- [ ]	4)공기할 수 있는 체언과 용언이 여러 개인 경우

위 표에 제시되는 { } 기호는 하나의 특정 어휘가 쓰일 때 사용하고 [ ] 기호는 공통의 의미자질을 갖는 어휘 군이 쓰일 때 사용한다. 손남익(1998)은 상징부사의 선행어 및 후행어와의 공기 관계를 모두가 살펴보고 유형까지 분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함윤희(2011)과 문정현(2011)에서는 손남익(1998)의 유형 분류는 상징부사와 선행어·후행어의 관계를 두루 살피고 있으며, 결합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적용하여 가장 세밀하게 ‘상징부사+용언’형 어휘 군을 분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기준에 따라 손남익(1998)의 유형을 다시 제1~4유형으로 이름 붙이고 구체화하여 살펴보았다.

### Ⅲ. 한국어 교재의 ‘상징부사+용언’형 목록 현황

이 장에서는 한국어 ‘상징부사+용언’형은 한국어 교재에서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어 교재 분석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상징부사+용언’형 교육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본고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분석할 교재는 주로 한국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교재뿐만 아니라 중국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도 같이 검토하기로 한다. 이들 교재에 반영된 ‘상징부사+용언’형의 제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 1. 한국대학 주요 한국어 교재

‘상징부사+용언’형 중심으로 교재 분석한 연구들은 색인 어휘만 살펴왔거나 상징부사의 범위를 용언으로 파생된 동사나 형용사까지 뽑았다. 본고에서는 자립성 없는 상징부사 뒤에 붙는 ‘-하다, -대다, -거리다, -이다’를 제외하여 살펴보기 때문에 교재를 다시 검토할 것이다. 교재에서 색인어휘 뿐만 아니라 본문대화, 문법예문, 연습 문제, 듣기지문 등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교재 선정

본 연구는 한국대학에서 현지 사용하고 있는 서울대 <한국어>, 서강대<서강 한국어>,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 연세대 <연세 한국어>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4가지 교재들이 모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영역의 통합교재이고,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본 장에서 분석할 4가지 한국어 교재의 정보는 아래<표Ⅲ-1>과 같다.

<표 Ⅲ-1> 한국대학의 한국어 교재

교재	단계	대학	출판사
<서울대 한국어>	1 - 5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투판즈
<서강 한국어>	1 - 5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재미있는 한국어>	1 - 6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교보문고
<연세 한국어>	1 - 6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다음으로 이 교재들 중에서 ‘상징부사+용언’형은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는 서울대학교의 <한국어>교재를 보겠다.

### (1) 서울대 <한국어>

<표 Ⅲ-2> 서울대 교재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형 목록

급수	단계	‘상징부사+용언’	총
초급	1	차곡차곡 담다, 폭 쉬다, 쪽 가다	3개
	2	없음	
	3	깜짝02 놀라다, 벌떡 일어나다, 텅 비다	
중급	4	깜빡 잇다, 딱03 맞다, 빙빙 돌다, 슬근슬근 톱질하다, 주렁주렁 열리다, 터덜터덜 돌아오다, 폭 쉬다, 폭 자다, 훨훨 날다, 화를 버럭 내다	13개
	5	깜짝 놀라다, 강충강충 뛰다, 짹 차다, 꾸벅꾸벅 졸다, 뚜벅뚜벅 걷다, 뚝 떨어지다, 반짝반짝 빛나다, 벌컥 열다, 벌컥벌컥 마시다, 살금살금 걷다, 싱글빙글 웃다, 엉엉 울다, 우당탕 넘어지다, 쿵쿵 자다, 툭툭 치다, 투덜투덜 불평하다, 폭 자다, 폭 쉬다, 하하 웃다, 허둥지둥 도망가다, 활짝 열다, 활짝 웃다, 훌쩍훌쩍 울다	

서울대학교에서 출판된 <한국어>교재는 초, 중, 고급으로 구성된 통합교재이다. 위 표와 같이 교재에서 제시된 ‘상징부사+용언’형은 중복된 것을 제외하여 초급은 3개만 있고 중급은 13개, 고급은 23개로 제시되었다. 교재 분석 결과를 보면 서울대 교재는 다른 대학기관의 교재에 비해 초·중·고급의 ‘상징부사+용언’형은 상대적 적고 ‘상징부사+용언’을 활발하게 교육 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교재는 초급에서부터 각 단원마다 새로운 어휘를 범주별로 제시 하고 있으며, 각주에도 새 어휘를 제시된다. 중, 고급에서는 ‘상징부사+용언’형은 개별 어휘에 포함되어 있었다. 교재 뒤의 어휘색인에서도 어휘와 표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교재에는 상징부사가 따로 제시하였지만 ‘상징부사+용언’형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설명이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 교재에는 먼저 상징부사는 범주별로 주제 어휘를 모아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그림과 동시에 제시해주고 다음으로 제시된 상징부사들을 말하기 부분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제시양상은 아래 내용과 같다.



해설자: 홍부는 할 수 없이 쫓겨나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홍부네 집 치마에는 제비들이 찾아와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제비:(뱀을 피하려다가 지붕 아래로 떨어지면서)지지배배! 지지배배!  
 ...생략...  
 제비:(날아오르면서 고마운 듯이 몇 바퀴 빙빙 돌고)지지배배! 지지배배!  
 해설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 제비는 훨훨 날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대 <한국어> 4B 어휘

서울대 <한국어> 4B 말하기

[그림 III-1] 서울대 교재의 ‘상징부사+용언’형 제시 양상

이상 서울대학교<한국어> 초, 중, 고급에서 정리된 ‘상징부사+용언’형 목록은 중복된 것을 제외하여 총 35개가 있다. 아래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서울대 교재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형 총 목록

깜짝02 놀라다, 깜빡 잇다, 깡충깡충 뛰다, 짹 차다, 꾸벅꾸벅 졸다, 딱03 맛다, 뚜벅뚜벅 걷다, 뚝 떨어지다, 반짝반짝 빛나다, 화를 버럭 내다, 벌컥 열다, 벌컥벌컥 마시다, 벌떡 일어나다, 빙빙 돌다, 살금살금 걷다, 슬근슬근 톱질하다, 싱글벙글 웃다, 엉엉 울다, 우당탕 넘어지다, 주렁주렁 열리다, 쪽 가다, 차곡차곡 담다, 쿵쿵 자다, 터덜터덜 돌아오다, 텅 비다, 툭툭 치다, 투덜투덜 불평하다, 폭 자다, 폭 쉬다, 하하 웃다, 허둥지둥 도망가다, 활짝 열다, 활짝 웃다, 훌쩍훌쩍 울다, 훨훨 날다
--

(2) 서강대<서강한국어>

다음으로 서강대학교 <서강한국어>교재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형은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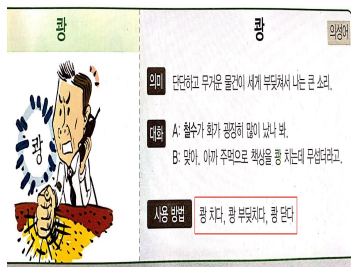
<표 III-4> 서강대 교재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 목록

급수	단계	‘상징부사+용언’	총
초급	1	깜짝02 놀라다, 돌돌 풀리다, 동동 뜨다, 폭 자다, 폭 쉬다	7개
	2	깜짝 놀라다, 신발이 딱 맛다, 쪽 가다, 폭 쉬다	
중급	3	갈래갈래 찢어지다, 깜빡 잊어버리다, 깜짝 놀라다, 짹 차다, 짹 막히다, 꾸벅 꾸벅 졸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다, 딱 좋다, 눈 딱 감다, 딱 맛다, 뚝 떨어지다, 물씬 풍기다, 바르르 떨다, 바들바들 떨다, 반짝반짝01 빛나다, 화를 버럭 내다, 벌떡 일어나다, 보글보글 끓다, 배가 살살 아프다, 살살 녹다, 싱글벙글 웃다, 와들와들 떨다, 엉엉 울다, 팡 단다, 파들파들 떨다, 풍당 빠지다, 폭 끓이다, 폭 쉬다, 풍덩 빠지다, 눈물이 핑 돌다, 하하 웃다, 확 트이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다, 후 내쉬다, 흘깃 쳐다보다, 흠뻑 젖다	49개
	4	깜빡 잇다, 뽕뽕 열다, 또박또박 말하다, 기온이 뚝 떨어지다, 반짝반짝 빛나다, 버럭 화를 내다, 쪽 빼닮다, 쪽 가다, 쪽 오다, 툭 치다, 펑펑 울다, 모자를 폭 눌러쓰다, 확 안다, 확 던지다, 활짝 웃다, 활짝 펼치다, 훨훨 날아가다	
고급	5	깜짝02 놀라다, 토끼가 깡충깡충 뛰다, 꼬르륵 소리가 나다, 침을 꿀꺽 삼키다, 짹 잡다, 짹 차다, 꾸벅꾸벅 졸다, 꼭 참다, 고개를 도리도리 젖다, 문을 툭툭 두드리다, 뚝 끊어지다, 뚝 그치다, 뚝 떨어지다, 눈물을 툭툭 흘리다, 반짝반	5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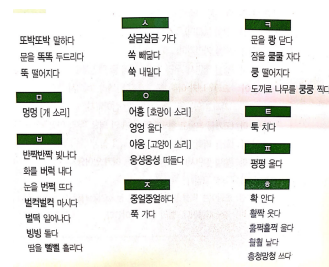


짝 빛나다, 방긱방긱 웃다, 버럭 화를 내다, 눈을 번쩍 뜨다, 벌떡 일어나다, 벌벌 떨다, 벌컥벌컥 마시다, 빙빙 돌다, 땀을 뻘뻘 흘리다, 살금살금 가다, 시시 쿨쿨 잠깐하다, 쑥 넣다, 쑥 나오다, 쑥 내밀다, 쑥 올라가다, 쑥 빠지다,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다, 웅성웅성 떠들다, 웅성웅성 소란스럽다, 재잘재잘 말하다, 질레질레 고개를 흔들다, 짹 뺨다, 쿵 치다, 쿵 부딪치다, 쿵 단다, 잠을 쿵쿨 자다, 쿵 떨어지다, 나무를 쿵쿵 찍다, 터벅터벅 걷다, 필필 뒤다, 평평 울다, 푹 빠지다, 푹 자다, 풀풀 풍기다, 입을 헤 벌리다, 활짝 웃다, 훌쩍훌쩍 울다, 훨훨 날다, 희끗희끗 세다

서강대 한국어교재는 1A에서 5B까지 총 10권으로 구성된다. 교재에서 제시된 ‘상징부사+용언’형은 중복된 것을 제외하여 초급은 7개가 있고 중급은 49개이다, 고급은 53개로 제일 많이 나타났다. <서강 한국어> 교재는 다른 교재에 비해 ‘상징부사+용언’형으로 제시된 수가 가장 많다. 1~4권은 각 과에서 ‘단어·표현’부분이 있고 품사별로 어휘를 제시하고 있으며 ‘상징부사+용언’형 어휘도 함께 제시하였다. 5권에서는 과마다 ‘새 어휘·문법’부분에서 어휘를 제시하고 있으며, ‘상징부사+용언’형 어휘도 따로 구분 없이 해당 어휘 아래에 함께 제시하였다. 5급에서 ‘상징부사+용언’형을 개별단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교재에서 맥락에 맞게 어휘를 사용하기 위하여 상징부사만 제시하는 것보다 ‘상징부사+용언’형으로 함께 제시하여 습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교재는 위 표에 제시하였듯이 ‘상징부사+용언’형이 각 단계별로 균형 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고급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 교재에서 ‘상징부사+용언’형의 제시 양상을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서강대 5B 2과 말하기



서강대 5B-2과 읽기2

[그림 III-2] <서강 한국어> 교재의 ‘상징부사+용언’형 제시 양상

서강대 <서강한국어> 초, 중, 고급에서 정리된 ‘상징부사+용언’형 목록을 중복된 것을 제외하여 총 94개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서강대 교재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형 총 목록

갈래갈래 찢어지다, 깜짝02 놀라다, 깜빡 잊어버리다, 토끼가 강충강충 뛰다, 꼬르륵 소리가 나다, 침을 꿀꺽 삼키다, 끽끽 열다, 짹 잡다, 짹 차다, 짹 막히다, 꾸벅꾸벅 졸다, 꺽 참다, 고개를 도리도리 젓다, 돌돌 풀리다, 동동 뜨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다, 딱 좋다, 눈 딱 감다, 신발이 딱 맞다, 또박또박 말하다, 문을 똑똑 두드리다, 똑 끊어지다, 똑 그치다, 기온이 딱 떨어지다, 눈물을 똑똑 흘리다, 물씬 풍기다, 바르르 떨어다, 바들바들 떨어다, 반짝반짝01 빛나다, 방긋방긋 웃다, 버럭 화를 내다, 눈을 번쩍 뜨다, 벌떡 일어나다, 벌벌 떨어다, 벌컥벌컥 마시다, 보글보글 끓다, 빙빙 돌다, 땀을 뺨뺨 흘리다, 살금살금 가다, 배가 살살 아프다, 살살 녹다, 싱글병글 웃다, 시시콜콜 참견하다, 쑥 빼닫다, 쑥 넣다, 쑥 나오다, 쑥 내밀다, 쑥 올라가다, 쑥 빠지다,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다, 엉엉 울다, 와들와들 떨어다, 웅성웅성 떠들다, 웅성웅성 소란스럽다, 재잘재잘 말하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다, 쭈뼛 뻗다, 쭈뼛 가다, 쭈뼛 오다, 쭈뼛 치다, 쭈뼛 부딪치다, 쭈뼛 당다, 잠을 쿵쿨 자다, 쿵 떨어지다, 나무를 쿵쿵 찍다, 터벅터벅 걷다, 툭 치다, 파들파들 떨어다, 펄펄 뛰다, 평평 울다, 풍당 빠지다, 푹 빠지다, 푹 자다, 푹 쉬다, 푹 끓이다, 모자를 푹 눌러쓰다, 풀풀 풍기다, 풍덩 빠지다, 눈물이 핑 돌다, 하하 웃다, 입을 헤 벌리다, 확 안다, 확 던지다, 확 트이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다, 활짝 웃다, 활짝 펼치다, 후 내쉬다, 훌쩍훌쩍 울다, 훨훨 날다, 훨훨 날아가다, 흘끗 쳐다보다, 흠뻑 젖다, 희끗희끗 세다
--

(3)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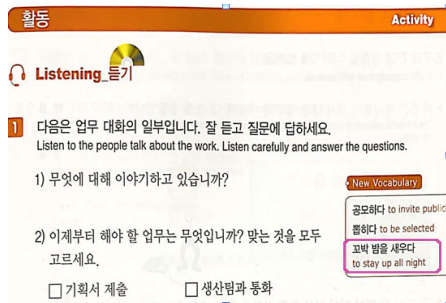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교재에서 ‘상징부사+용언’형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표 III-6> 고려대 교재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형 목록

급수	단계	‘상징부사+용언’	총
초급	1	꽉 누르다, 딱 붙다, 쭈뼛 가다, 푹 자다, 푹 쉬다, 푹 빠지다, 활짝 피다	8개
	2	깜빡 잊어버리다, 짹 누르다, 딱 붙다, 꺽 가다, 푹 쉬다, 푹 빠지다	
중급	3	깜박 졸다, 깜박 잇다, 깜짝02 놀라다, 꼬치꼬치02 묻다, 끽끽 말다, 짹 막히다, 또박또박 말하다, 물씬 풍기다, 뺨 뚫리다,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다, 술술 풀리다, 땀이 줄줄 흐르다, 꺽 가다, 탁 탁 떨어다, 평평03 울다, 눈이 평평03 내리다, 푹 빠지다, 푹 숙이다, 푹푹 찌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다, 활짝 열다	24개

	4	꼬치꼬치 묻다, 짹 막히다, 똑똑 새다, 부라부라 돌아오다, 뽕 뽕 리다, 줄줄 흐르다, 쿵다쿵다 뛰다, 탁탁 털다, 폭 빠지다, 폭 속 이다, 폭폭 쪼다	
고급	5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 갑작02 놀라다, 꺾꺾 웃다, 꼼짝 못하다, 눈을 짹 감다, 짹 잡다, 짹 막히다, 짹 움키다, 꺾 밟다, 꺾꺾 참 다, 끽끽 앓다, 덜덜 떨다, 덜덜 떨리다, 동동 뜨다, 동동02 뜨다, 뽕뽕 뭉치다, 똑똑 떨어지다, 멀뚱히 쳐다보다, 무럭무럭 자라다, 물끄러미 바라보다, 약이 바짝 오르다, 반짝반짝01 빛나다, 귀가 번쩍 뜨이다, 정신이 번쩍 나다, 번쩍번쩍 빛나다, 벌떡 일어나다, 보글보글 끓다, 부르르 떨다, 붕 뜨다, 빙글빙글 돌다, 싱글빙글 웃음이 나다, 싱글빙글 웃다, 언뜻언뜻 보이다, 영금영금 기다, 웅기웅기 모이다, 주렁주렁 열리다, 쪽 늘어서다, 진땀이 쪽 내솟다, 축 처지다, 쿵 쪼다, 쿵쪼 쪼르다, 탁 트이다, 탁탁 털다, 파릇파릇 돋다, 펑 치다, 펑펑 뛰다, 눈이 펑펑 날리다, 평평01 터지다, 폭 속이다, 폭 빠지다, 몸이 화끈거리다	51개
	6		없음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는 초, 중, 고급으로 나누어 총 6권으로 구성된 통합교재이다. 교재에서 제시된 ‘상징부사+용언’형은 중복된 것을 제외하여 초급은 8개가 있고 중급은 24개이다, 고급은 51개로 나타났다. 고려대 교재 초·중급에서는 각 과에서의 본문, 활동 연습부분 옆에서 모두 새 어휘를 따로 제시하고 있으며, ‘상징부사+용언’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고급 5, 6단계에서 각 과마다 어휘1과 어휘2를 따로 제시하고 있으며, 상징부사를 5급단계의 ‘어휘 늘리기’에서 제시하였고 ‘상징부사+용언’형은 예문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이 교재에도 ‘상징부사+용언’형에 관한 개념과 특징을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교재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형의 제시양상은 아래 그림과 같다.



3급 ‘활동’에서의 제시 양상

**의성어·의태어 1 과학**

- 과학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의성어·의태어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다음 그림을 보고 어떤 의미인지 추측해 보자.

보글보글

덜덜

둥둥

주렁주렁

- 다음 예문을 보고 의미를 확인해 보자.
  - 가: 물이 끓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나: 보통은 보글보글 끓는 소리로 알지요.
  - 가: 질량이 많이 나가는 무거운 배가 어떻게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을 수 있어요?  
나: 바다의 밀도보다 배의 밀도가 낮으면 떠 있을 수 있지요.
  - 가: 한여름인데 왜 이렇게 물이 덜덜 떨어지나요?  
나: 저도 그래요. 높은 산속이라 그런가 봐요.
  - 가: 잎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나: 중력의 원리라면 저기 **주렁주렁 열린** 사과가 떨어질 때가 됐는데…….  
가: 아이고, 그렇다고 위에 있는 모든 게 다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5급 ‘어휘 놀리기’에서의 제시 양상

[그림 III-3] <재미있는 한국어>교재의 ‘상징부사+용언’형 제시 양상

고려대<재미있는 한국어> 초, 중, 고급에서 정리된 ‘상징부사+용언’형 목록을 중복된 것을 제외하여 총 75개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 <표 III-7>과 같다.

<표 III-7> 고려대 교재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형 총 목록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 깜빡 잇다(잊어버리다), 깜박 졸다, 깜짝 놀라다, 걸걸 웃다, 꼬치꼬치 묻다, 꿈쩍 말다, 꿈쩍 못하다, 눈을 짹 감다, 짹 막히다, 짹 잡다, 짹 누르다, 짹 움키다, 꺾 밟다, 꺾꾹 찎다, 끽 끽 앓다, 덜덜 떨다, 덜덜 떨리다, 둥둥 뜨다, 둥둥 뜨다, 딱 붙다, 또박또박 말하다, 푹푹 멍치다, 푹푹 떨어지다, 푹푹 새다, 멀뚱히 쳐다보다, 무럭무럭 자라다, 물끄러미 바라보다, 물씬 풍기다, 약이 바짝 오르다, 반짝반짝 빛나다, 귀가 번쩍 뜨이다, 정신이 번쩍 나다, 번쩍번쩍 빛나다, 벌떡 일어나다, 보글보글 끓다, 부랴부랴 돌아오다, 부르르 떨다, 붕 뜨다, 빙글빙글 돌다, 땡 뚫리다,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다, 술술 풀리다, 싱글빙글 웃음이 나다, 싱글빙글 웃다, 땀이 줄줄 흐르다, 해가 쨍쨍하다, 주렁주렁 열리다, 쪽 가다, 쪽 늘어서다, 진땀이 쪽 내솟다, 언뜻언뜻 보이다, 엉금엉금 기다, 웅기종기 모이다, 축 처지다, 쿵닥쿵닥 뛰다, 쿵 찌다, 쿵쿵 찌르다, 탁 트이다, 탁탁 털다, 과룩과룩 돌다, 펑 치다, 펄펄 뛰다, 눈이 펄펄 날리다, 평평 터지다, 평평 울다, 눈이 평평 내리다, 폭 자다, 폭 쉬다, 폭 빠지다, 폭 숙이다, 폭폭 찌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다, 활짝 피다, 활짝 열다

(4) 연세대학교 <연세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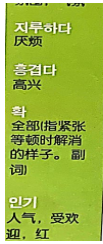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연세한국어>교재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형은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III-8> 연세대 교재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형 목록2)

급수	단계	'상징부사+용언'	총
초급	1	폭 쉬다	5개
	2	깜빡 잊어버리다, 깜짝 놀라다, 쾅쾅 열다, 쭈 가다, 폭 쉬다	
중급	3	깜짝 놀라다, 깜빡 잊어버리다, 깜빡 깜빡 있다, 폭 안다, 가슴이 팍 막히다, 다 다닥다닥 붙다, 슬슬 정리하다, 쭈 퍼다, 폭 쉬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다	28개
	4	가득 차다, 밤을 꼬박 새우다, 꼬박꼬박 내다, 남몰래 청소하다, 두리번두리번 살피다, (기운이) 뚝 떨어지다, 바람 술술 불다, 싱글벙글 웃다, 안절부절 못하 다, 오들오들 떨다, 요리조리 피하다, 쭈 지켜보다, 축 처지다, 눈이 퉁퉁 붓다, 펄펄 뛰다, 돈을 펑펑 쓰다, 폭 쉬다, 후후 불다	
고급	5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다, 깜짝 놀라다, 깜빡깜빡 있다, 푹푹 두드리다, 팍 차다, 꽉 잡다, 꾸벅꾸벅 졸다, 꺾 참다, 뚝 떨어지다, 뚝 끊어지다, 뚝 그치다, 바삭 마르다, 바삭 타다, 바삭 굽다, 반짝반짝 빛나다, 화를 버럭 내다, 눈을 번쩍 뜨 다, 번쩍 들다, 벌떡 일어나다, 벌벌 떨다, 벌컥벌컥 마시다, 빈둥빈둥 놀다, 빙 빙 돌다, 땀을 뻘뻘 흘리다, 아기가 새근새근 자다, 쑥 나오다, 쑥 내밀다, 영영 울다, 웅성웅성 떠들다, 웅성웅성 소란스럽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다, 쭈 뻘 다, 쾅 치다, 쾅 부딪치다, 쾅 닫다, 잠을 푹 푹 자다, 푹 치다, 쾅 울다, 폭 빠지 다, 폭 쉬다, 입을 헤 벌리다, 활짝 펼치다, 훌쩍훌쩍 울다	59개
	6	가득 차다, 깜빡 있다, 딱 벌어지다, 바람이 살살 불다, 살살 녹다, 스르르 녹다, 싱글벙글 웃다, 쑥쑥 늘다, 쭈 퍼다, 쭈 뻘다, 쭈 서다, 쭈 마시다, 쭈 굶다, 탁 트 이다, 푹푹 뛰다, 푹 치다, 폭 쉬다, 폭 자다, 폭 빠지다, 흠뻑 취하다	

연세대학교 <연세한국어>는 총 6권으로 구성되고 초급, 중급교재는 영어판, 중국어판, 일본어판으로 발간하였고 중국인 학습자에게 배우기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재에서 제시된 '상징부사+용언'형은 중복된 것을 제외하여 초급은 5개 있고 중급은 28개이다, 고급은 59개가 나타났다. 이 교재는 각 과의 주제관 관련된 어휘를 제시하였으며, '상징부사+용언' 결합 형태는 초급부터 나타났다. 과제 밑에도 따로 구분해 새 어휘를 제시되어 있다. 특히 중·고급에 와서 '상징부사+용언'의 수도 늘어지고 있다. 중·고급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형은 본문대화보다 문법이나 과제연습에 나타난 것이 그 수가 더 많다. 이 교재에서 '상징부사+용언'형의 제시양상은 다음 그림과 같다.

2)이 교재에서 나타난 '명사+상징부사' 형은 뒤에 용언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 '기침-콜록콜록' 등 이런 결합 형태를 제외할 것이다.



웨이 재미있는 공연 좀 추천해 주세요. 주말에 친구하고 같이 보려고요.  
 마리아 한국 전통 음악은 어때요? 사물놀이 공연이 정말 볼 만하던데요.  
 웨이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국 전통 음악이면 조용한 분위기인가요?  
 마리아 아니에요, 저도 지루할 줄 알았는데 흥겹고 재미있었어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던데요.**  
 웨이 그래요? 그럼 친구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겠어요.  
 마리아 그 공연은 인기가 많으니까 예매를 서둘러야 할걸요.

<연세한국어> 3-1 4과 4항 본문대화

[그림 III-4] <연세한국어>교재의 ‘상징부사+용언’형 제시 양상

연세대학교 <연세한국어> 총 6권 교재에 제시된 ‘상징부사+용언’형 목록은 중복된 것을 제외하여 총 80개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 <표 III-9>와 같다.

<표 III-9> 연세대 교재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형 총 목록

가득 차다,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다, 깜짝 놀라다, 깜빡 잊다(잊어버리다), 깜빡깜빡 잊다, 밤을 꼬박 새우다, 꼬박꼬박 내다, 꼭 안다, 퐁퐁 열다, 가슴이 꽉 막히다, 꽉 차다, 꽉 잡다, 꾸벅꾸벅 졸다, 꼭 참다, 남몰래 청소하다, 다다다다 붙다, 두리번두리번 살피다, 딱 벌어지다, 푹푹 두드리다, (기온이) 푹 떨어지다, 푹 끊어지다, 푹 그치다, 바삭 마르다, 바삭 타다, 바삭 굽다, 반짝반짝 빛나다, 화를 버럭 내다, 눈을 번쩍 뜨다, 번쩍 들다, 벌떡 일어나다, 벌벌 떨다, 벌컥벌컥 마시다, 빈둥빈둥 놀다, 빙빙 돌다, 땀을 뻘뻘 흘리다, 바람이 살살 불다, 살살 눅다, 아기가 새근새근 자다, 바람 솔솔 불다, 스르르 눅다, 슬슬 정리하다, 싱글벙글 웃다, 쑥쑥 늘다, 쑥 나오다, 쑥 내밀다, 안절부절 못하다, 오들오들 떨다, 영영 울다, 요리조리 피하다, 웅성웅성 떠들다, 웅성웅성 소란스럽다, 머리를 질레질레 흔들다, 쭈 지켜보다, 쭈 가다, 쭈 퍼다, 쭈 서다, 쭈 마시다, 쭈 굶다, 쭈 뺀다, 축 처지다, 쿵 치다, 쿵 부딪치다, 쿵 닫다, 잠을 푹푹 자다, 탁 트이다, 푹푹 튀다, 푹 치다, 눈이 푹푹 붓다, 펄펄 뛰다, 펑펑 울다, 돈을 펑펑 쓰다, 폭 자다, 폭 빠지다, 폭 쉬다, 입을 헤 벌리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다, 활짝 펼치다, 후후 불다, 훌쩍훌쩍 울다, 흠뻑 취하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어 4종 교재에서 발견된 ‘상징부사+용언’형은 총 195개가 있다. 공통적으로 제시된 것을 보면 아래<표 III-10>과 같다.

<표 III-10> 한국대학 4종 교재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형 총 목록

횟수	'상징부사+용언'	총
4	깜빡 잊다(잊어버리다), 깜짝 놀라다, 푹 쉬다, 푹 자다, 싱글벙글 웃다, 반짝반짝 빛나다, 벌떡 일어나다, 쪽 가다	8개
3	가슴이 짹 막히다, 짹 잡다, 짹 차다, 꾸벅꾸벅 졸다, (기운이) 푹 떨어지다, 화를 버럭 내다, 영영 울다, 벌컥벌컥 마시다, 빙빙 돌다, 잠을 쿨쿨 자다, 평평 울다, 펄펄 뛰다, 푹 빠지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다, 훌쩍훌쩍 울다	15개
2	(토끼가) 강충강충 뛰다, 퐁퐁 열다, 꺾 참다, (신발이) 딱 맞다, 또박또박 말하다, 문을 푹푹 두드리다, 푹 끊어지다, 푹 그치다, 물씬 풍기다, 눈을 번쩍 뜨다, 벌벌 떨다, 보글보글 끓다, 땀을 뺨뺨 흘리다, 살살 녹다, 쑥 나오다, 쑥 내밀다, 거북이가 영금영금 기다, 웅성웅성 떠들다, 웅성웅성 소란스럽다, 절레절레 흔들다, 주렁주렁 열리다, 쪽 뻗다, 축 치지다, 광 치다, 광 부딪치다, 탁 트이다, 푹 치다, 하하 웃다, 입을 헤 벌리다, 활짝 웃다, 활짝 열다, 활짝 펼치다, 훨훨 날다	33개
1	가득 차다, 갈래갈래 찢어지다,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 깜박 졸다, 깜빡깜빡 잊다, 꺼꺼 웃다, 꼬르륵 소리가 나다, 꼬박꼬박 내다, 꼬치꼬치 문다, 꼭 안다, 침을 꿀꺽 삼키다, 꺼꺼 말다, 꺼꺼 못하다, 눈을 꺼 꺼 감다, 꺼 누르다, 꺼 움키다, 꺼 뺨다, 꺼꺼 참다, 꺼꺼 앓다, 남몰래 청소하다, 다닥다닥 붙다, 고개를 도리도리 젓다, 돌돌 풀리다, 동동 뜨다, 두리번두리번 살피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다, 덜덜 떨다, 덜덜 떨리다, 동동 뜨다, 동동 뜨다, 딱 좋다, 눈 딱 감다, 딱 붙다, 딱 벌어지다, 푹푹 몽치다, 뚜벅뚜벅 건다, 푹푹 떨어지다, 푹푹 새다, 눈물을 푹푹 흘리다, 멀뚱히 쳐다보다, 무력무력 자라다, 물끄러미 바라보다, 바르르 떨다, 바들바들 떨다, 약이 바짝 오르다, 바짝 마르다, 바짝 타다, 바짝 굵다, 번쩍 들다, 귀가 번쩍 뜨이다, 정신이 번쩍 나다, 번쩍번쩍 빛나다, 벌컥 열다, 부라부라 돌아오다, 부르르 떨다, 붕 뜨다, 빙글빙글 돌다, 빈둥빈둥 놀다, 방긱방긱 웃다, 뺨 뺨리다, 살금살금 건다, 살금살금 가다, 바람이 살살 불다, 배가 살살 아프다, 아기가 새근새근 자다,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다, 바람 솔솔 불다, 솔솔 풀리다, 스르르 녹다, 슬슬 정리하다, 슬근슬근 푹질하다, 시시콜콜 참견하다, 싱글벙글 웃음이 나다, 쑥 빼닮다, 쑥 넣다, 쑥 올라가다, 쑥 빠지다, 쑥쑥 늘다, 안질부질 못하다, 언뜻언뜻 보이다, 오들오들 떨다, 와들와들 떨다, 웅기종기 모이다, 요리조리 피하다, 우당탕 넘어지다, 재잘재잘 말하다, 땀이 줄줄 흐르다, 쪽 늘어서다, 진땀이 쪽 내솟다, 쪽 지켜보다, 쪽 꺼다, 쪽 서다, 쪽 마시다, 쪽 굶다, 쪽 오다, 차곡차곡 담다, 쿵닥쿵닥 뛰다, 광 단다, 광광 단다, 쿵 찌다, 쿵쿵 찌르다, 쿵 떨어지다, 나무를 쿵쿵 찌다, 탁탁 털다, 터덜터덜 돌아오다, 터벅터벅 건다, 텅 비다, 푹푹 치다, 푹푹 뛰다, 투덜투덜 불평하다, 눈이 푹푹 붓다, 파들파들 떨다, 파릇파릇 돋다, 꺼 치다, 눈이 꺼꺼 날리다, 돈을 평평 쓰다, 평평 터지다, 눈이 평평 내리다, 풍당 빠지다, 푹 숙이다, 푹 끊이다, 모자를 푹 눌러쓰다, 푹푹 찌다, 풀풀 풍기다, 풍덩 빠지다, 눈물이 평 돌다, 허둥지둥 도망가다, 확 안다, 확 던지다, 확 트이다, 활짝 꺼다, 후 내쉬다, 후후 불다, 훨훨 날아가다, 훌쩍 쳐다보다, 흠뻑 취하다, 흠뻑 젖다, 희끗희끗 세다	139개

## 2. 중국대학 주용 한국어 교재

### 1). 교재 선정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교육 현황은 단지 한국 교육기관에서 출간된 한국어 교재만 살펴보면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출간된 한국어 교재도 같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출간된 한국어 교재는 주로 지금까지 한국어 전공을 설립된 대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기준으로 분석하겠다. 선정된 교재는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표 III-11> 중국대학의 한국어 교재

교재	단계	출판사
<표준한국어>	1 - 3	베이징대학교출판사
<한국어>	1 - 4	민족출판사
<기초한국어>	1 - 4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다음으로 이 교재들 중에서 ‘상징부사+용언’형은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는 <표준한국어>교재를 보겠다.

#### (1) 베이징대학교출판사의 <표준한국어>

<표준한국어>교재에서 ‘상징부사+용언’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권 교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아래 <표 III-12>>와 같다.

<표 III-12> <표준한국어>교재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형 목록

교재	‘상징부사+용언’	총
표준한국어1	깜짝 놀라다, 강충강충 뒤다, 딱 맞다, 반짝반짝 비치다, 팔짝 뛰다, 폭 자다, 폭 주무시다 <sup>3)</sup> , 폭 쉬다, 획획 달리다	9개
표준한국어2	가득 담기다, 깜빡 졸다, 깜빡 잊어버리다, 깜짝 놀라다, 우뚝 솟다, 폭 자다, 폭 쉬다	7개

3) ‘폭 자다’, ‘폭 주무시다’ 등과 같은 ‘상징부사+용언’형은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징부사 뒤에 오는 용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처리하지 않고 모두 제시하였다.



표준한국어3	가득 차다, 가득 채우다, 깜빡 잊다(잊어버리다), 깜짝 놀라다, 꼼짝 못하다, 꼼짝 않다, 짹 끼다, 벌벌 떨다, 실력이 부쩍 늘다, 부쩍 많아지다, 부랴부랴 치우다, 술술 넘어오다, 슬근슬근 툇질하다, 오순도순 정을 나누다, 주렁주렁 열리다, 다리를 쭉 피다, 텅 비다, 얼굴 퉁퉁 붓다, 눈이 펄펄 쏟아지다, 폭폭 찌다, 냄새가 확 풍기다, 비를 흠뻑 맞다	22 개
--------	--	---------

위 표에서 보듯이 <표준한국어1>에서 나타난 ‘상지부사+용언’형은 총 9개가 제시되어 있다. <표준한국어2>에서 나타난 ‘상지부사+용언’형은 총 7개가 제시되어 있다. <표준한국어3>에서 나타난 ‘상지부사+용언’형은 총 22개가 제시되어 있다. 교재에서 나타난 ‘상지부사+용언’형은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은 없고 대부분은 주로 대화, 문법예문, 연습문제 등에서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교재 중에서 등장한 한국어 상징부사의 의미제시, 및 ‘상지부사+용언’형에 관한 사용방법은 한번도 제시되지 않았다. 그 중에서 ‘깜짝 놀라다’와 ‘폭 자다’만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나머지의 뜻을 번역되지 않았다. 제시 양상을 보면 아래 내용과 같다.

- (4) ㄱ: 어제 하도 더워서 선풍기를 틀어 놓은 채 잤더니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昨天實在太熱，開着風扇睡了，結果臉腫得老高。  
 ㄴ: 선풍기를 틀어 놓고 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조심하세요.  
 開着電風扇睡覺多危險呀，請小心。

<표준한국어> 3권 교재에서 나타난 ‘상지부사+용언’형 목록을 중복된 것을 제외하여 총 33개가 있다. 목록은 아래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표준한국어>에서 나타난 ‘상지부사+용언’형 총 목록

가득 담기다, 가득 차다, 가득 채우다, 깜빡 졸다, 깜빡 잊다(잊어버리다), 깜짝 놀라다, 꼼짝 못하다, 꼼짝 않다, 깡충깡충 뛰다, 짹 끼다, 딱 맞다, 반짝반짝 비치다, 벌벌 떨다, 실력이 부쩍 늘다, 부쩍 많아지다, 부랴부랴 치우다, 술술 넘어오다, 슬근슬근 툇질하다, 오순도순 정을 나누다, 우뚝 솟다, 주렁주렁 열리다, 다리를 쭉 피다, 텅 비다, 얼굴 퉁퉁 붓다, 팔짝 뛰다, 눈이 펄펄 쏟아지다, 폭 자다, 폭 주무시다, 폭 쉬다, 폭폭 찌다, 냄새가 확 풍기다, 휘휘 달리다, 비를 흠뻑 맞다
--

(2) 민족출판사의 <한국어>

다음으로 <한국어>교재에서 ‘상징부사+용언’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겠다. 4권 교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아래 <표 III-14>와 같다.

<표 III-14> <한국어>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형 목록

교재	‘상징부사+용언’형	총
한국어1	마음에 딱 들다	1개
한국어2	가득 메우다, 꾸벅 인사를 드리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다, 문을 덜컥 열다, 덜컥 겁이 나다, 덜컥 약속해버리다, 덜컥 병이 나다, 덜컥 승낙을 하다, 덜컥덜컥 소리가 나다, 덩실덩실 추다, 딱 맞다. 장신을 바짝 차리다, 땀을 뻘뻘 흘리다, 물에 살짝 데치다, 생글생글 웃다, 싱글싱글 웃다, 땀을 쫙 들어가다, 킁킁 웃다, (함박눈이) 펑펑 내리다, 푹 자다, 푹 주무시다, 푹 쉬다, 옷이 흠뻑 젖다	23개
한국어3	꼼짝 못하다, 꼼짝 말다, 꼼짝 앓다, 꺾 채우다, 사랑을 듬뿍 받다, 딱 맞다, 딱 잡다, 딱 벌어지다, 입을 딱 벌리다, 눈이 딱 마주치다, 딱 어울리다, 딱 밥맛이 떨어지다, 문득 생각이 나다, 반짝반짝 비치다, 부랴부랴 가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다, 빙빙 돌다, 선뜻 안겨주다, 언뜻 보다, 애지중지 가꾸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내리다, 소름이 쭉 끼치다, 오히려 축 늘어지다, 허둥지둥 돌아오다, 땀을 흠뻑 흘리다, 옷이 흠뻑 젖다	26개
한국어4	가득히 차다, 짹짹 놀라다. 짹짹 있다, 꼬박꼬박 챙겨 먹다, 푹푹 껴안다, 덜컥 약속하다, 드문드문 눈에 뜨이다, 문을 푹푹 두드리다, 무럭무럭 크다, 문득 생각나다, 소리를 바르르 떨다, 번개가 번쩍번쩍 치다, 귀가 번쩍 뜨이다, 버럭 화를 내다, 불쑥 말하다, 벌떡 일어나다, 눈을 번쩍 뜨다, 빙 돌다, 사르르 없어지다, 입에서 사르르 녹다, 사르르 방문을 열다, 눈을 사르르 감다, 입을 사르르 흔들다, 배가 사르르 아프다, 일이 술술 풀리다, 우레가 우르릉 거리다, 꽃이 울긋불긋 피다, 우르르 몰려들다, 우르르 내려오다, 안절부절 못하다, 울컥 치밀다, 주렁주렁 달리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다, 다리를 쭉 펴다, 얼굴을 차츰 풀리다, 소리는 차차 가늘어지다, 돈을 척척 찾다, 통 모르다, 툭 튀어나오다, 감이 툭 떨어지다, 툭 떨어뜨리다, 툭 치다, 툭 끊어지다, 툭 부러지다, 툭 불거지다, 툭 트이다, 툭 터놓다, 파르르 성을 내다, 바람에 파르르 흔들리다, 파르르 소리 내다, 파르르 뜨다, 파릇파릇 싹이 트다, 마음 폭 놓다, 달빛을 함뻑 받다, 마음이 확 풀리다, 웃음이 활짝 피어나다, 꽃 이 활짝 웃다, 휘 둘러보다, 땅이 흠뻑 젖다, 땀이 흠뻑 흘리다, 흠뻑 뒤를 돌아보다, 흠뻑 놀라다	62개

위 표에서 보듯이 <한국어1>에서 나타난 ‘상지부사+용언’형은 1개만 제시되어 있다. <한국어2>에서 나타난 ‘상지부사+용언’형은 23개가 제시되어 있다. <한국어3>에서 나타난 ‘상지부사+용언’형은 26개가 제시되어 있다. <한국어4>는 62개로 가장 많다. 이 교재에서 상징부사는 직접적으로 제시되었다. 제8

과 ‘단풍’의 어휘 활용 부분에서 첫 번째 어휘 ‘흠뻑’을 따로 설명하고 있다, ‘흠뻑’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하나는 ‘분량이 차고도 남도록 아주 넉넉하게’로 설명하고 있으며, 중국어로는 ‘充分地, 充足地, 足足地’라고 번역되어 있다. 또 하나는 ‘濕透或淋濕貌’ (몹시 젖은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다. ‘상징부사+용언’형의 사용방법은 예문에서 제시하였다. 제시 양상을 보면 아래 <표 III-15>와 같다.

<표 III-15> <한국어>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형 제시 양상

▶ 詞匯活用 ◀	
1. 흠뻑(副詞)	
1) 表示達到足夠的程度, 相當於漢語的‘充分地’ 例: 맑은 공기를 흠뻑 마셨다. 吸足了清新的空氣。 아름다운 경치에 흠뻑 취했다. 被美麗的精緻深深地陶醉了。	2) 表示濕透或淋透貌 例: 비를 맞아 옷이 흠뻑 젖었다. 淋了雨, 衣服都濕透了。 운동을 하면서 흠뻑 땀을 흘렸다. 運動時出了一身汗。
<한국어3> 어휘활용	

<한국어> 4권 교재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형 목록을 중복된 것을 제외하여 총 86개가 있다. 목록은 아래 <표 III-16>과 같다.

<표 III-16> <한국어>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형 총 목록

가득히 차다, 깜짝 놀라다, 깜빡 잇다, 꼬박꼬박 챙겨 먹다, 푹푹 껴안다, 꼼짝 못하다, 꼼짝 말다, 꼼짝 앓다, 짹 채우다, 덜컥 약속하다, 드문드문 눈에 뜨이다, 사랑을 듬뻍 받다, 딱 맞다, 딱 잡다, 딱 벌어지다, 마음에 딱 들다, 입을 딱 벌리다, 눈이 딱 마주치다, 딱 어울리다, 딱 밥맛이 떨어지다, 문을 푹푹 두드리다, 무럭무럭 크다, 문득 생각나다, 소리를 부르르 떨다, 반짝반짝 비치다, 귀가 번쩍 뜨이다, 번개가 번쩍번쩍 치다, 버럭 화를 내다, 부랴부랴 가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다, 불쑥 말하다, 벌떡 일어나다, 눈을 번쩍 뜨다, 빙 돌다, 빙빙 돌다, 사르르 없어지다, 입에서 사르르 녹다, 사르르 방문을 열다, 눈을 사르르 감다, 입을 사르르 흔들다, 배가 사르르 아프다, 선뜻 안겨 주다, 일이 술술 풀리다, 안질부질 못하다, 애지중지 가꾸다, 언뜻 보다, 꽃이 우르르 물려들다, 우르르 내려오다, 울컥 치밀다, 울긋불긋 피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내리다, 주렁주렁 달리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다, 소름이 쭈 끼치다, 다리를 쭈 펴다, 소리는 차차 가늘어지다, 얼굴을 차츰 풀리다, 돈을 척척 찾다, 잃은 축 늘어지다, 툭 튀어나오다, 감이 툭 떨어지다, 툭 떨어뜨리다, 툭 치다, 툭 끊어지다, 툭 부러지다, 툭 불거지다, 툭 트이다, 툭 터놓다, 툭 모르다, 파르르 성을 내다, 바람에 파르르 흔들리다, 파르르 소리 내다, 파르르 뜨다, 파릇파릇 씩이 트다, 마음 폭 놓다, 달빛을 함뻑 받다, 허둥지둥 돌아오다, 마음이 확 풀리다, 웃음이 활짝 피어나다, 꽃 이 활짝 웃다, 휘 둘러보다, 땀을 흠뻑 흘리다, 흠뻑 젖다, 몸이 흠뻑 움츠러들다, 흠뻑 뒤를 돌아보다, 흠뻑 놀라다

(3)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의 <기초한국어>

마지막으로 <기초한국어>교재가 ‘상징부사+용언’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4권 교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아래 <표 III-17>와 같다.

<표 III-17> <기초한국어>교재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형 목록

교재	‘상징부사+용언’형	총
<기초1>	꽉 차다, 입에 딱 맞다, 차차 흐려지다, 탁 트이다, 폭 쉬다, 꽃이 활짝 피다	6개
<기초2>	깜빡 있다, 끄끄 앓아눕다, 딱 부러지다, 입에 딱 맞다, 입에서 살살 녹다, 왈각 눈물이 쏟아지다, 엉엉 소리 내다, 점점 줄다, 점점 변하다, 폭 쉬다	10개
<기초3>	가득 차다, 가득 가슴에 안다, 곰곰이 생각하다, 깜박 졸다, 책을 꼼꼼히 훑어보다, 약속을 남몰래 후회하다, 못내 아쉽다, 물썩 풍기다, 불쑥 나타나다, 주먹을 불끈 쥐다, 빠끔히 닦다, 성큼성큼 걸어오다, 점점 많아지다. 땀이 줄줄 흐르다, 무릎을 탁 치다, 텅 비다, 눈물이 펑 돌다	17개
<기초4>	가득 차다, 가득 채우다, 눈물이 가득 괴다, 깜짝 놀라다, 꼬르륵꼬르륵 소리를 내다, 뽕뽕 열다, 꺾 참다, 남몰래 탐하다, 달랑 챙겨가다, 얼굴에 덕지덕지 바르다, 무럭무럭 자라다, 빈둥빈둥 놀다, 빙빙 돌다, 구멍이 뻥 뚫리다, 뿔뿔이 떠나다, 선뜻 선호하다, 쑥쑥 자라다, 오순도순 살다, 우뚝 서다, 움푹 패다, 조심조심 걸다, 죽 데리다, 주렁주렁 맺히다, 주렁주렁 달리다. 종아리를 찰싹찰싹 치다, 돈을 척척 찾다, 활짝 피우다, 활짝 열리다	28개

위 표에서 보듯이 <기초한국어1>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형은 6개가 제시되어 있다. <기초한국어2>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형은 10개가 제시되어 있다. <기초한국어3>은 17개가 제시되어 있다. <기초한국어4>에서는 28개가 제시되어 있다. 이 교재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도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고 대부분은 주로 대화 예문, 연습문제 등 중에서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교재 중에서 등장한 한국어 상징부사의 개념 설명, 및 ‘상징부사+용언’의 사용방법은 한번도 제시되지 않았다. 어휘색인에서도 상징부사와 그 뒤에 오는 용언은 따로 제시하고 있다. 제시 양상을 보면 아래 <표 III-18>과 같다.

<표 III-18> <기초한국어4>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형 제시 양상

어휘 제시 :

뺨	【副】	穿孔貌
뚫리다[뚫리다]	【被動】	開通, 穿通

연습 제시:

시간이 흐를수록 빈자리가 어찌나 크게 느껴지( ) 가슴에 구멍이 뺨 뚫린 것 같았다.(던지, 든지, 면서, 더니)

위 표를 보듯이 <기초한국어>교재에서 상징부사 ‘뺨’과 용언 ‘뚫리다’는 새 어휘 부분에서 부사로 따로 제시되어 있고 상징부사 ‘뺨’은 중국어로 ‘구멍이 뚫리는 모양’으로 번역되어 있다. 연습문제에서 ‘상징부사+용언’형으로 ‘구멍이 뺨 뚫리다’를 제시하고 있다. <기초한국어> 4권 교재에서 나타난 58개의 ‘상징부사+용언’형 목록은 아래<표 III-19>와 같다.

<표 III-19> <기초한국어>교재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형 총 목록

가득 차다, 가득 채우다, 눈물이 가득 피다, 가득 가슴에 안다, 곰곰이 생각하다, 깜짝 놀라다, 깜박 졸다, 깜빡 잇다,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다, 책을 꼼꼼히 훑어보다, 퐁퐁 열다, 짹 차다, 꺾 참다, 퐁퐁 앓아눕다, 약속을 남몰래 후회하다, 남몰래 탐하다, 달랑 챙겨가다, 얼굴에 덕지덕지 바르다, 딱 부러지다, 입에 딱 맞다, 못내 아쉽다, 무럭무럭 자라다, 불쑥 나타나다, 주먹을 불끈 쥐다, 빈둥빈둥 놀다, 빙빙 돌다, 빠끔히 닦다, 구멍이 뺨 뚫리다, 뽀뽀이 떠나다, 입에서 살살 녹다, 선뜻 선호하다, 성큼성큼 걸어오다, 쑥쑥 자라다, 오순도순 살다, 왈칵 눈물이 쏟아지다, 우뚝 서다, 움푹 패다, 엉엉 소리를 내다, 점점 많아지다. 점점 줄다, 점점 변하다, 땀이 줄줄 흐르다, 조심조심 걸다, 죽 데리다, 주렁주렁 맺히다, 주렁주렁 달리다, 차차 흐려지다, 종아리를 찰싹찰싹 치다, 돈을 척척 찾다, 무릎을 탁 치다,탁 트이다, 텅 비다,푹 쉬다, 물씬 풍기다, 눈물이 펄 돌다, 꽃이 활짝 피다, 활짝 피우다, 활짝 열리다

이상 중국대학의 3종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형 목록은 중복된 것을 제외하여 정리되면 총 162개가 있다. 최종 목록은 아래<표 III-20>과 같다.

<표 III-20> 중국대학 3종 교재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형 최종 목록

횟수	‘상징부사+용언’	총
3	깜빡 잊다(잊어버리다), 깜짝 놀라다	2개
2	가득 채우다, 가득 차다, 꼼짝 못하다, 꼼짝 앓다, 딱 맞다, 반짝반짝 비치다, 빙빙 돌다, 주렁주렁 달리다, 돈을 척척 찾다, 텅 비다, 푹 쉬다	11개
1	<p>가득 담기다, 눈물이 가득 피다, 가득 가슴에 안다, 가득히 차다, 곰곰이 생각하다, 깜박 졸다, 깜빡 졸다, 강충강충 뒤다, 꼬박꼬박 챙겨 먹다,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다, 푹푹 껴안다, 짹 채우다, 짹 차다, 짹 끼다, 꼼짝 말다, 책을 꼼꼼히 훑어보다, 푹푹 열다, 푹 참다, 푹푹 앓아눕다, 약속을 남몰래 후회하다, 남몰래 탐하다, 달랑 챙겨가다, 얼굴에 덕지덕지 바르다, 덜컥 약속하다, 드문드문 눈에 뜨이다, 사랑을 듬뿍 받다, 딱 잡다, 딱 벌어지다, 딱 부러지다, 입에 딱 맞다, 마음에 딱 들다, 입을 딱 벌리다, 눈이 딱 마주치다, 딱 어울리다, 딱 밥맛이 떨어지다, 문을 푹푹 두드리다, 못 내 아쉽다, 무럭무럭 크다, 무럭무럭 자라다, 문득 생각나다, 물씬 풍기다, 소리를 바르르 떨다, 버럭 화를 내다, 귀가 번쩍 뜨이다, 눈을 번쩍 뜨다, 번개가 번쩍번쩍 치다, 벌벌 떨다, 벌떡 일어나다, 실력이 부쩍 늘다, 부쩍 많아지다, 부랴부랴 치우다, 부랴부랴 가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다, 불쑥 말하다, 불쑥 나타나다, 주먹을 불끈 쥐다, 빈둥빈둥 놀다, 빙 돌다, 빠끔히 닦다, 구멍이 뻥 뚫리다, 뿔뿔이 떠나다, 사르르 없어지다, 입에서 사르르 녹다, 사르르 방문을 열다, 눈을 사르르 감다, 입을 사르르 흔들다, 배가 사르르 아프다, 입에서 살살 녹다, 선뜻 선호하다, 선뜻 안겨주다, 성큼 성큼 걸어오다, 술술 넘어오다, 일이 술술 풀리다, 슬근슬근 톱질하다, 쑥쑥 자라다, 안절부절 못하다, 애지중지 가꾸다, 언뜻 보다, 영영 소리를 내다, 오순도순 정을 나누다, 오순도순 살다, 왈각 눈물이 쏟아지다, 우뚝 서다, 우뚝 솟다, 꽃이 우르르 물러들다, 우르르 내려오다, 울컥 치밀다, 울긋불긋 피다, 움푹 패다, 점점 많아지다. 점점 줄다, 점점 변하다, 조심조심 걷다, 주렁주렁 맺히다, 주렁주렁 열리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내리다, 죽 데리다, 땀이 줄줄 흐르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다, 소름이 쪽 끼치다, 다리를 쪽 피다, 다리를 쪽 피다, 소리는 차차 가늘어지다, 차차 흐려지다, 얼굴을 차츰 풀리다, 종아리를 찰싹찰싹 치다, 잃은 축 늘어지다, 무릎을 탁 치다, 탁 트이다, 통 모르다, 툭 튀어나오다, 감이 툭 떨어지다, 툭 떨어뜨리다, 툭 치다, 툭 끊어지다, 툭 부러지다, 툭 불거지다, 툭 트이다, 툭 터놓다, 얼굴 툭툭 붓다, 파르르 성을 내다, 바람에 파르르 흔들리다, 파르르 소리 내다, 파르르 뜨다, 파릇파릇 싹이 트다, 팔짝 뛰다, 눈이 펄펄 쏟아지다, 푹 자다, 푹 주무시다, 마음을 푹 놓다, 푹푹 찌다, 눈물이 펄 돌다, 달빛을 함빡 받다, 허둥지둥 돌아오다, 냄새가 확 풍기다, 마음이 확 풀리다, 웃음이 활짝 피어나다, 활짝 피우다, 꽃이 활짝 피다, 꽃이 활짝 웃다, 활짝 열리다, 휘 둘러보다, 휘휘 달리다, 땀을 흠뻑 흘리다, 흠뻑 젖다, 비를 흠뻑 맞다, 몸이 흠뻑 움츠러들다, 흠뻑 뒤를 돌아보다, 흠뻑 놀라다</p>	149개

### 3. 교재 분석 결과

이상 7종 한국어교재에서 나타난 ‘상징부사+용언’형을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한국국내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4종 통합교재의 분석 결과에 따라 ‘상징부사+용언’형은 총 195개가 있다. 4종 교재에서 한국어 상징부사를 교수·학습하기 위하여 연세대 교재를 제외하여 개별 단원을 준비하였다. ‘상징부사+용언’의 형태로 구분하여 직접적으로 제시한 교재는 서강대 교재만 있고, 다른 3종 교재는 모두 개별 어휘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교재들을 편찬할 때 ‘상징부사+용언’ 결합형 어휘의 학습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 국내 주요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의 분석결과를 보면 ‘상징부사+용언’형은 총 162개가 있다. 3종 교재에서 ‘상징부사’를 교수·학습하기 위하여 개별 단원을 준비한 교재는 베이징대학의 <한국어>교재 하나만 있다. 4가지 교재에서 ‘상징부사와 용언’형을 모두 개별 어휘형식으로 따로 제시하고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교재에서 제시된 ‘상징부사와 용언’은 대부분 연습문제나 보충어휘에서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교재들도 한국국내 교재와 같이 ‘상징부사+용언’ 결합하여 학습하는 중요성과 효율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국내·외 각 교재는 제시된 ‘상징부사+용언’은 제시 방법이 다르고 제시된 ‘상징부사+용언’의 난이도도 다르다. 또한 제시된 ‘상징부사+용언’형의 목록과 ‘상징부사+용언’의 수도 각 교재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7종 교재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어 ‘상징부사+용언’형이 초급에 비하여 중·고급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재의 집필진들이 본격적인 ‘상징부사+용언’형의 교육을 초급에 비해 중급과 고급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교재의 ‘상징부사+용언’형 개선 방안

앞에 교재 분석에서 논의하였듯이, 한국 주요 대학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에서의 ‘상징부사+용언’은 ‘새 어휘’, ‘주석’, ‘활동연습’, ‘어휘 색인’나 ‘찾아보기’등에 나타났다. 중국 주요 대학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에서 ‘상징부사+용언’을 나타낸 부분은 ‘어휘 활용’, ‘연습문제’ 등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상징부사+용언’을 중심으로 교재의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교재는 여러 단원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새 어휘부분이나 주석부분에 ‘상징부사+용언’ 경합형의 제시 방법을 수정하는 것보다 교재 뒤의 부록에 있는 ‘어휘 색인’의 제시 방법을 수정하는 것이 교재 내용 구성에 적은 양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재에서 제시된 어휘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바로 교재 부록의 주요 기능이다.

학습자가 ‘상징부사+용언’형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직접 ‘상징부사+용언’형 정보를 제시해 주는 것보다 학습자가 ‘상징부사+용언’형을 직접 찾게 하는 것이 더 좋은 학습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현지 한국어 교육·학습 과정에서 교재의 부록은 잘 활용되지 않지만, 학습자는 복습이나 자습을 할 때 부록을 많이 사용한다.

앞에 교재 분석 결과를 보면 교재마다 부록에는 ‘어휘색인’이나 ‘찾아보기’가 있다. 앞에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재 개선 방안을 주로 중국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교재를 연구 자료로써 교재 개선안을 구사하겠다. 여기서는 <표준한국어>교재를 예시로 하겠다. 제시 양상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V-1> <표준한국어> 교재 부록 수정 전

어휘 색인							
	ㄱ				ㄴ		
가구	(名)	住戶,家口	32	낙지	(名)	章魚	218
가꾸다	(他)	打扮,培植	198	날로	(副)	日益	131
가능하다	(形)	可能	32				
가뭄이 들다	(詞組)	干旱	52		ㄷ		
갈수록 태산	(諺語)			번번이	(副)	每次,屢次	198
	表示事情越來越難		138	벌벌 떨다	(詞組)	哆哆嗦嗦	252
꼭 끼다	(詞組)	緊, 瘦	54	부라부라	(副)	急急忙忙	218
				부쩍	(副)	猛然,一下子	87

분석 결과에 따라 각 한국어 교재는 어휘를 나타낸 방식은 다르다. 모든 교재에서 ‘상징부사+용언’형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교재에서 ‘상징부사+용언’을 어휘색인에서 등장해도 그들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고 일반 어휘 부분과 동일하게 ‘ㄱ, ㄴ, ㄷ, ㄹ……’순으로 제시하였다. ‘어휘 색인’은 외국인 학습자가 복습이나 자습을 할 때에 어휘의 의미를 확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깜짝 놀라다, 깜박 잊다, 폭 쉬다’ 등과 같은 ‘상징부사+용언’형을 일반어휘와 구분하지 않고 ‘ㄱ, ㄴ, ㄷ, ㄹ……’순서로 배열하였다. 즉, ‘상징부사+용언’형의 특성을 드러내지 않고 단순히 일반 어휘와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 교재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뒤에 있는 어휘색인에서 ‘어휘색인’과 ‘표현 색인’을 나누어 ‘상징부사+용언’ 결합형 어휘는 ‘표현 색인’에 넣어 수정할 것이다. 수정할 교재는 <표준한국어3>을 예시로 하겠다. 다른 대학의 한국어 교재는 이를 참조하면 된다. 구체적인 수록 방안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IV-2> <한국어> 교재 부록 수정 후

어휘 색인		가뭄이 들다 (詞組) 干旱		52	
ㄱ					
가구	(名)	住戶,家口	32	갈수록 태산 (諺語)	
가꾸다	(他)	打扮,培植	198	表示事情越來越難	138
가능하다	(形)	可能	32	팍 끼다 (詞組) 緊, 瘦	54
ㄴ					
낙지	(名)	章魚	218	벌벌 떨다 (詞組) 哆哆嗦嗦	252
날로	(副)	日益	131	부라부라 치우다 (詞組) 急急忙忙	218
				부쩍 많아지다 (詞組) 猛然,一下子	87
ㄷ					
번번이	(副)	每次,屢次	198		
부라부라	(副)	急急忙忙	218	텅 비다 (詞組) 空蕩蕩地	72
부쩍	(副)	猛然,一下子	87	퉁퉁 붓다 (詞組) 腫得厲害	218
표현 색인		표			
				평평 쏟아지다 (詞組) 紛紛(下雪貌)	265
ㄷ					

중국인 학습자에게 ‘상징부사+용언’ 결합형을 교육할 때 하나의 상징부사 어휘만 가져와서 교육하는 것보다 ‘상징부사+용언’ 형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 위 표와 같이 교재 개선 방법을 제시하였다. 교재에서 하나의 상징부사 어휘만 제시하지 않고 뒤에 나타난 용언들도 어휘 목록에서 함께 제시해 주면 ‘상징부사+용언’ 결합 관계에 대한 인지를 알게 될 수 있다. 상징부사 뒤에 어떤 용언과 자주 공기할 수 있는지 학습한 후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예측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세밀한 느낌과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때 보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한국어 '상징부사+용언'형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교재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수 외국인 학습자들이 어휘를 습득할 때 개별 단어를 암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어휘간의 결합을 중시하지 않으므로 한국어 어휘를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상징부사는 고립되어 사용하지 않으며 특정 어휘와 자주 공기하기 때문에 개별 어휘가 아닌 '상징부사+용언' 형태로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는 상징부사 뒤에 오는 특정 어휘 또는 공통적인 의미자질을 가진 어휘 군과 자주 공기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에 상징부사 뒤에 서술어가 함께 사용되는 양상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기관에서 주요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7종 교재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상징부사+용언'형을 중심으로 교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상징부사+용언'형의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경태(2009), 반복 합성 의성, 의태 부사의 말뭉치 빈도 연구 -한국어 학습용 4음절의 반복 합성 부사 선정을 위한 시론, *우리어문연구*, *우리어문학회*.
- 고영근(2006),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김윤경(2009), 한국어 '상징부사+용언'형 연어의 목록 선정과 교수 활동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홍법(1994), 한국어 상징어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당리민(2017), 「한국어 의성어·의태어의 교육 방안 연구-외국인 학습자 교육용 어휘 선정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정현(2012),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상징부사+용언'형 언어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수(2009), 상징부사의 언어적 공기관계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손남익(1998), 국어 상징부사어와 공기어 제약, 『한국어의미학』 3집, *한국어의미학회*.
- 신지영(2008),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사류+용언'형 언어 교육방안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정(2015),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상징부사의 언어구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Liu,Huiwen(201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의성어와 의태어 교육 연구: 교육용 어휘선정과 교육 방안 설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희원(1993), 의성어 의태어의 개념과 정의, 『*새국어생활*』 3-2, *국립국어연구원*
- 장언청(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 의태어 대비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2017), 한국어 교육에서의 의성어·의태어 결합형 언어교육 방안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주연(2015), 언어 관계를 이용한 의성어·의태어 교육 방안 연구: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함윤희(2011),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상징부사 중심 언어 연구, *연세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李鏡儿(2007), 《現代漢語擬聲語研究》, *學林出版社*
- 劉月華1993, (潘文娛,1993), 『實用現代漢語語法』, *外語教學与研究出版社*
- 王力(1995), 《現代語法》, *商務印書館*
- 夏征農(1999) 『辭海』, *上海辭書出版社*.
- 朱德熙(1982),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 Abstract

# A Vocabulary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 of Korean textbooks for Chinese learners: focusing on Korean “symbol adverb+predicate”

Yi Zong

Inha University, Ph.D. Candidate

This study is to form develops an effective teaching method centered on the Korean “symbol adverb + predicate” type, helping Chinese students to learn Korean to communicate more accurately when expressing detailed complex feelings and various emotions. Many foreign language learners try to memorize individual words when they acquire the new vocabulary, this may lead to a problematic in that they cannot use Korean vocabulary accurately and naturally because they do not value the combination of vocabulary words. Since symbolic adverbs are not used in isolation and being frequently used with certain vocabulary words, it is more effective to teach them in the form of instruct learners using “symbol adverb + predicate” forms rather than individual vocabulary words. Accordingly, this research considers a particular vocabulary following symbolic adverbs or vocabulary groups with common semantic qualities that could be frequently introduced. Seven Korean language textbooks used by university in domestic Korea and China are compared and analyzed to reveal the aspects of differences in the use of descriptive words after symbolic adverbs. Finally, based on the textbook analysis results, the government propose a plan to improve the Korean “symbol adverb + predicate” type for Chinese learners. However, this study was limit to being unable to present specific educational measures for Chinese learners in the form of “symbol adverb + predicate”. This is expected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n subsequent studies, and lead to more specific discussions.

**Keywords:** symbol adverb, “symbol adverb + predicate”, textbook analysis, Chinese learners, textbooks improvement plan

논문투고일자: 2021.03.26.

논문심사일자: 2021.04.20.

게재확정일자: 2021.04.27.